

SBS 리우 올림픽 방송단 발대식 “1등 올림픽 방송 우리가 만든다!”

박칼린, 김태영, 현정화... 초호화 해설진 ‘명품 중계’ 다짐



뒷줄 왼쪽부터 김동문(배드민턴), 장지현(축구), 김주영·신수지(리듬체조), 현정화(탁구), 정국현(태권도), 노민상(수영), 김재열(골프), 김영일(레슬링), 김영(골프), 박종훈(기계체조), 박성현(양궁), 이도희(배구), 임오경(핸드볼), 전기영(유도), 원우영(펜싱), 박경모(양궁), 장재근(육상) 앞줄 왼쪽부터 배성재, 윤성호, 배기완, 최영주, 김정일, 정석문, 박선영, 조민호, 정우영, 조정식 아나운서

‘1등 올림픽 방송’을 실현할 SBS의 2016 리우 올림픽 방송단이 7월 21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올림픽 체제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SBS 리우 올림픽 해설위원과 캐스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원 사장은 21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대단한 선수 경력과 방송 경험을 가진 분들을 해설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올림픽 방송이 1등하리라는 믿음이 간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방송도 팀워크가 중요하다. 캐스터, 해설위원, 방송단 모두 서로 믿고 배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이번 리우 올림픽 방송에서 멋진 팀워크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채널 SBS의 얼굴인 만큼 따뜻하고 공감 어린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달해서 올림픽채널 SBS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김진원 사장의 선창에 따라 “함께

즐기는 리우/함께 만드는 기적/올림픽채널 SBS”를 외치며 팀워크로 1등 올림픽 방송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SBS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화려한 해설진을 자랑한다. 새롭게 축구 해설위원으로 합류한 2002 한일 월드컵 ‘마스크 투혼’의 주인공 김태영, 우여곡절 끝에 리우에 합류한 수영의 박태환을 키운 스승 노민상, 탁구여왕 현정화, 원조 리듬체조 요정 신수지,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핸드볼의 임오경,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금메달 김동문, 둘이 합해 올림픽 양궁 금메달 5개의 주인공 박경모, 박성현 부부 등 쟁쟁한 스포츠계 스타들이 SBS에서 후배들의 4년간의 땀방울을 전문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안방에 전달한다. 또 SBS의 ‘깜짝 카드’ 박칼린 예술감독이 리우 올림픽 개회식 특별 해설을 맡아 명품 중계를 완성한다.

21명의 해설위원과 12명의 캐스터는 경기 일정에 맞춰 리우로 출국하며, 완벽한 준비와 최상의 호흡으로 차원이 다른 중계를 선사한다.



박칼린 해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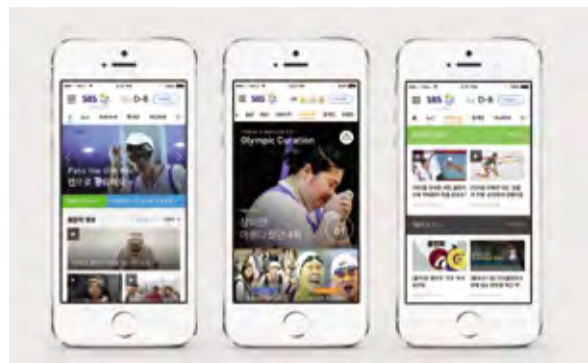


김태영 해설위원

최고의 올림픽 방송 위해 모두 뭉쳤다!

SBS 리우 올림픽 방송단이 현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는 SBS그룹 내 모든 팀이 색다른 홍보와 창의적 시도로 '1등 올림픽 방송'을 위한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소셜림픽 1위 목표! 공식 사이트와 SNS계정 오픈



SBS 리우 올림픽 공식 사이트(<http://rio2016.sbs.co.kr>)가 7월 18일(월) 오픈했다. 이번 올림픽 온라인 서비스는 소셜림픽 1위를 목표로, 모바일 친화적인 특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림픽 개막과 함께 제공되

는 '올림픽 큐레이션'은 밤새 리우에서 일어난 다양한 경기 결과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소식 중 주요이슈를 소개하는 서비스다. 넘쳐나는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만 선별해 전달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의 일환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랩Q'는 랩 장르를 스포츠 다큐에 접목시킨 콘텐츠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정식 아나운서가 래퍼로 변신해 SBS 중계진을 소개한 영상은 정보에 재미를 더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랩Q'는 온라인용으로 제작됐으나 TV에서도 볼 수 있으며, 올림픽 기간 중 총 8편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올림픽 현장의 감동을 보다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360 RIO' 포토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폐회식이 진행되는 마라카낭 경기장을 비롯해 여러 경기장과 경기 장면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현장에 있는 듯 체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리우 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는 '미라클 연재퀵', '올픽션', '올스토리' 등 SBS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공식사이트 외에 SBS 리우 올림픽 SNS 계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SBS 리우 올림픽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SBS_Olympics)과 트위터 계정(@SBS_olympics), 페이스북 계정(@SBS olympics)에서는 해설위원과 캐스터, 중계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SBSNOW'(@sbsnow)에서도 리우 올림픽 소식을 잘 빠르게 만나 볼 수 있다.

현장감 살린 트리아트로 리우 올림픽 함께 즐긴다



목동 SBS방송센터 정문 좌우측 펜스에 SBS 올림픽 방송을 홍보하는 트리아트 5개가 설치됐다. 스포츠를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종목인 태권도, 육상, 축구와 시상대, 리우의 전경 등을 모티브로 하는 트리아트는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PR팀 관계자는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을 제공함으로써 SBS 올림픽 방송을 홍보하고 동참하게 한다는 취지다. 6일 오후 2시에는 SBS 정문에서 시민들 대상 트리아트 현장 이벤트가 시행되며, 그 외에도 사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이 사람 - 김유석 SBS 리우 올림픽 방송단장

“올림픽은 역시 SBS! 사원들도 바이럴 마케터로 동참해주길..”

리우 올림픽 방송에서 SBS만의 차별화 전략은?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을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것이 SBS 올림픽 방송의 핵심 전략이다. 3사 가운데 SBS가 리우 현장 생중계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간판 스포츠 캐스터 배기완, 배성재 아나운서와 수영 노민상, 양궁 박성현-박경모 부부, 리듬체조 신수지-김주영, 유도 전기영, 탁구 현정화 씨를 비롯한 분야별 최고의 캐스터와 해설진이 재미와 감동, 열정이 어우러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방송에는 특별 해설위원을 영입했다. 인천 장애인 올림픽 개·폐회식 총연출을 맡았던 뮤지컬 감독이자 공연 예술가인 박칼린 씨가 특별해설로 참여해 브라질 문화와 역사, 예술의 진수가 담긴 개회식 공연을 전문가 시각에서 짚어줄 것이다.

SBS 올림픽 방송의 '특허 콘텐츠'인 미니 다큐는 60초~90초 길이로 전보다 훨씬 짧으면서도 깊은 인상을 주도록 만들었다.

요즘 화두로 떠오른 VR(가상현실) 영상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 제작해 온라인과 모바일은 물론, TV 방송에서도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올림픽 중계방송 시청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올빼미(올림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코너는 경기시



작 전 감초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번에는 SBS만의 올림픽 응원가를 별도로 만들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자신의 곡 '흰수염고래'를 편곡해 재능 기부했다. 올림픽 영상 구성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SBS 올림픽 방송의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올림픽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도 별도로 제작해 TV방송과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특히 걱정했던 부분은?

브라질이 치안이 불안한 나라인데다 각종 질병에도 취약해 우리 방송단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

현지로 출발하기 전 우리 방송단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파상풍, A형 간염, 황열병 예방주사까지, 많게는 5번이나 주사를 맞았다.

브라질이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여서 방충제와 방충망을 별도로 준비했다. 다행히 브라질은 지금 겨울철이어서 지카 바이러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치안 상황은 리우 도심에서도 대낮에 강도를 당할 정도로 열악하고 최근 테러 위험성까지 높아져 대회기간 내내 긴장을 풀 수 없을 것 같다.

SBS 올림픽 방송단은 SBS뿐 아니라 SBS미디어그룹 전체가 참여해 구성된 만큼 팀플레이가 더욱 중요해졌다. 리우가 지구 반대편에 있고 12시간 시차여서 현지 방송단과 국내 방송 인력 모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의 최고 책임자다. 각오 한마디.

TV와 TV 밖에서 모두 '올림픽은 역시 SBS'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겠다.

SBS미디어그룹 가족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SBS 올림픽 방송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즐겨주시고, '바이럴 마케터' 역할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김희애!” 흥행 퀸의 저력 증명 <끝에서 두 번째 사랑>



7월 30일(토) 첫 회가 방송된 특별기획 <끝에서 두 번째 사랑>(극본: 최윤정, 연출: 최영훈/이하 끝사랑)이 수도권 시청률 10.4%(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2회는 조금 더 상승해 10.9%를

기록했다. SBS 주말극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전작 <미녀 공심이>가 같은 시청률(1회 10.4%, 2회 10.9%)로 시작해 호평을 받으며 16.3%의 시청률로 막을 내린 것을 생각할 때 앞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첫 회에서는 스타 드라마 PD 강민주(김희애 분)와 5급 공무원(지진희 분)의 첫 만남이 코믹하게 그려졌다. 촬영 협조문의 오타로 꼬이

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민주가 관광용 분수대를 훼손하고, 아직 시설 점검을 받지 않은 번지점프대를 무리하게 이용하다 사고를 치는 등의 악연으로 이어진다.

첫 회에서는 스타 드라마 PD 강민주(김희애 분)와 5급 공무원(지진희 분)의 첫 만남이 코믹하게 그려졌다. 촬영 협조문의 오타로 꼬이

<끝사랑>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부분은 김희애와 지진희의 거침없이 망가지는 코믹연기다.

<미세스 캅>에서 액션연기를 선보였던 김희애는 <끝사랑>에서 분수대에 빠지고, 뽀로로 망토를 입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무아지경으로 막춤을 추는 등의 모습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했다.

전작인 <애인있어요>에서 절절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인 지진희는 답답하리만큼 원리원칙을 지키는 공무원 연기로 웃음을 선사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웃겨! 비현실과 현실의 공존”, “역시 김희애! 연기며 자기관리며”, “기대 없이 봤는데 은근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를 나타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5급 공무원 고상식과 제발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바라는 드라마 PD 강민주의 이야기를 통해 40대의 삶과 사랑을 그리는 힐링 로맨스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은 매주 토, 일 밤 9시 55분에 방송된다.

세계 최초 ATSC 3.0 UHD방송 SFN테스트 성공



뉴미디어개발팀은 국산송신기 제조사인 진명통신(주)과 지난 2016년 7월 15일 관악산 UHD실험국/목동 UHD실험국/목동 방송 센터를 ATSC 3.0 SFN(Single Frequency Network)으로 구성하는 실험방송에 성공했다.

SFN은 ATSC 3.0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그동안의 방송 주

파수는 방송 서비스 지역 내에서 간섭을 막기 위해 모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SFN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송신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ATSC 3.0 송신기를 SFN으로 구성하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 않았는데, SBS가 금년 초부터 진명통신(주) 및 덴마크 ProTV사와 기술 개발 및 협력을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실험방송으로 그동안의 기술적 미결사항이 해소됐으며, 더불어 국내업체의 기술로 실험방송이 성공한 만큼 방송장비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사와 장비제조업체가 UHD방송을 계기로 상생 협력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 상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왼쪽부터 손승욱 차장, 시청자위원회 박영상 위원장, 김영욱 차장대우, 김재원 차장대우

7월 27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6 상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열렸다.

TV 보도·교양 부문 수상작 <그것이 알고 싶다> ‘θ (세타)의 경고! 경고!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 (연출: 장경주) 편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와 보도로 세간에 화제가 됐다.

역시 TV 보도·교양 부문 수상작 <TV동물농장> ‘쇼윈도 속 새끼 강아지의 불편한 진실’ (연출: 이덕건, 김재원) 편은 6개월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애완견 생산 공장의 충격적인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TV 예능 부문 수상작 <판타스틱 듀오>(연출: 김영욱)는 평범한 일반인에게 가수와 협연을 펼칠 수 있는 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회 감동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디오 부문 수상작인 러브FM <장현규가 만난 사람>(연출: 손승욱)은 청취자들의 달인 마음과 귀를 여는 힐링 토크 프로그램으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불러내는 제작진의 기획력이 높이 평가됐다.

라디오 절대 강자 파워FM, 18개월 연속 청취율 1위

파워FM이 2016년 MRS(수도권 라디오 청취자 대상 청취율) 3라운드(분기) 조사에서 22.5%의 청취율로 18개월 연속 전체 채널 청취율 1등을 차지했다. 2등을 차지한 MBC 표준FM과의 격차도 지난 2라운드의 2.1%에서 이번엔 3.7% 차이로 벌리는 등 독보적인 1등이다.

또한, <두시탈출 컬투쇼>는 12.2%(평일)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1등을 차지하는 등, TOP 15위 안에 파워FM 프로그램 4개를 포진시켰다.

더불어 지난 3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러브FM은 TV의 ‘2049’에 해당하는 ‘1359’ 청취층에서 6등으로 한 계단 상승하는 등 개편의 효과를 보고 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SBS 기프트 숍 확장 오픈



SBS 기프트 숍이 새 단장을 끝내고 8월 1일(월) 목동 SBS 방송센터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옛 기념품코너가 있었던 자리에 전시 공간을 넓혀 문을 연 기프트 숍은 SBS PB 상품과 견학용품, 사무용품, 라디오 협찬상품 등을 시중보다 20% 싸게 판매한다. 기프트 숍에 들른 직원들은 “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진 데다가 가격도 싸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프트 숍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박찬준 차장은 “과거의 기념품코너는 품질이나 다양성이 부족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견학용품을 개선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프트 숍 오픈과 함께 라디오 공개방송 방청자 및 견학자들은 기념품을 기프트 숍에서 수령한다. 외부 손님들에게 다양한 SBS 캐릭터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8월 중순경에는 온라인 몰도 오픈한다. 온라인 몰이 오픈되면 직원들이 위탁하는 빈티지 중고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SBS Plus UHD 전문채널 개국, 빅뱅 특집 다큐 등 방송

SBS플러스가 8월 1일(월) UHD 콘텐츠 전문 채널 ‘SBS플러스 UHD’를 론칭했다. UHD는 기존 풀HD의 4배에 달하는 해상도를 구현하는 영상기술로, 이 채널은 100% UHD 콘텐츠를 방송하게 된다.

2015년 3월 열린 빅뱅 콘서트 실황과 멤버들의 미공개 인터뷰가 담긴 특집 다큐멘터리가 이 채널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또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16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등 해외축구, 골프, 야구, 동계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웹 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 요리 예능 <셰프끼리2>, <중화대반점>, <날씬한 도시락2> 등도 방송된다.

‘SBS플러스 UHD’는 스카이라이프 102번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여기는 리우

“테러, 지카 다 비켜!” 역대급 올림픽 방송 준비 완료



거의 36시간 가까운 여정이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여정은 방송단을 지치게 했지만, 초가을의 선선한 리우 날씨가 방송단의 피로를 어루만졌다.

8월 6일(토, 한국시간 기준) 리우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SBS 리우 올림픽 방송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국민들에게 생생한 중계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방송단 규모만 총 100여 명. 약 3주간의 '지구촌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방송단은 여독이 채 가시기 전에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모두가 우려하듯 현재 브라질 현지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치안을 위해 브라질 당국이 올림픽 관련 시설에 군인을 배치하고, 선수촌 및 미디어버리지에는 보안 인

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송단이 머무는 IBC는 이미 각국의 방송사들이 입주해 있지만, 알려진 대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건물 내부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현지 사정이 불안하지만, 우리 방송단은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매일 IBC에 출근하며 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림픽 소식을 전달해줄 IBC 뉴스 세트와 중계 부스는 이미 단장을 마쳐 다양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고, 아나운서팀은 메인 MC 겸 앵커를 맡은 박선영 아나운서와 장예원 아나운서를 필두로 사전 점검에 한창이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처음 VR서비스를 선보일 VR팀은 리

우의 유명 관광지에는 물론 리우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생생하게 담아내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이고, 취재팀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리우 이슈들을 발굴해내며 발로 뛰고 있다. 이밖에 기술팀, PR팀 등 각 팀들 역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역대급 올림픽 방송'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함께 즐기는 리우, 함께 만드는 기적'을 위한 우리 방송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왔다. '올림픽채널 SBS'의 명성을 이어갈 '리우 올림픽 방송단'에 뜨거운 성원과 응원의 박수가 필요한 순간이다.

- PR팀 남동우

우리 프로그램은요~

속이 땡~ 뚫리는 시원한 〈남희석의 사이다〉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토 오전 11:00~12:00



무더운 여름,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뉴스를 보다가 온갖 사회면 기사에 우울해지고, 힘든 회사 일에 짜증이 나서 불쾌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면, 매일 오전 11시 103.5MHz 러브FM에 주파수를 맞추고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시길!

〈남희석의 사이다〉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관계"들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 삶의 고민들을, 마치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신 후 얽힌 속이 확 내려가듯, 시원하게 땡 뚫어주겠다는 콘셉트로 탄생된 프로그램이다.

입담이라면 뒤지지 않는 25년 방송 내공의 DJ 남희석의 재치 있는 입담과, 여러 소통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이다〉는 매일 매일 보내오는 청취자들의 실시간 고민들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현실적으로(쓴 소리도 필요하다면 절대 마다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하지만 웃음의 포인트 또한 절대 놓치지 않는 '재미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표방한다.

연애, 결혼, 직장, 이웃, 친구... 이런 단어들을 몇 개만 열거해 봐도, 이 중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건 거의 없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 현실을 웃음으로 지혜롭게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때로는 더 많이 화내주고, 더 많이 아파해주고, 또 더 많이 마음을 나눠주고, 늘 곁에서 웃어주는 프로그램이 되자는 목표로 달려온 〈남희석의 사이다〉!

지난 3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이제 갓 100일을 넘긴 갓난아이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100일이 아니라 100년은 산 것 같은 여유와 통찰력을 포함한, 웃음의 미학을 보여주고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모두가 고민 없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 연출 송경희 PD(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소속)

공연·전시

아크로바틱에 비보잉댄스까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일시 6월 17일(금) ~ 8월 21일(일) •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작년 프랑스 오리지널 내한공연으로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3년 만에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 무대를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성당의 종치기 콰지모도, 근위대장 페뷔스, 대주교 프롤로, 그리고 이야기의 내레이터이자 방랑 시인인 그랭구와르의 이야기를 그린다.

콰지모도 역은 배우 홍광호와 문종원, 처음 뮤지컬에 도전장을 내민 가수 케이윌이 맡아 각기 다른 매력으로 뮤지컬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콰지모도를 맡은 홍광호는 연기력, 가사 전달력, 가창력 등 어느 한 군데도 나무랄 데가 없다.

케이윌은 1000번 이상 콰지모도 역을 맡은 프랑스 오리지널 배우 맷 로랑에게 가창력과 보이스를 인정받고 자신만의 콰지모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 외에 〈노트르담 드 파리〉를 대표하는 윤공주, 마이클 리, 정동하, 서범석, 최민철과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전나영, 린아, 김다현, 오종혁, 이충주, 박승권, 김금나, 다음(EYES) 등이 최강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 없이 50여곡의 노래와 음악으로만 이루어지는 성스루(sung-through) 뮤지컬이다. 듣는 즐거움 외에 보는 즐거움도 있다. 집시들의 축제 장면이나 무대 벽을 타는 장면에서 온몸을 전율케 하는 아크로바틱, 현대무용, 비보잉 댄스를 선보인다. 그 동안 봐오던 군무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안무는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